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심의 총평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장애인 예술단체, 장애인 예술가, 비장애인 예술 단체의 높은 관심 속에 총 510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의위원들의 면밀한 지원신청서 검토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185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 지원 금액은 32억 6천만 원이다.

사업유형별로는 ‘창작 활성화 지원’ 77건, ‘문화예술 향수 지원’ 34건, ‘동호회 활동 지원’ 24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27건, ‘국제교류활동 지원’ 23건으로 총 185건이다.

심의위원들은 사업목적 및 실행계획, 수행방법, 실현가능성, 사업수행역량 등을 기준으로 사업의 방향성 및 구체성, 예술 장르별 수월성, 작품의 완성도,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였고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며 사업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예술 지향적이고 참신한 기획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 창작 활성화 지원

[다원예술, 무용, 연극, 예술일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창작 활성화 지원’ 유형은 장애인의 예술 창작 활동 활성화와 발표 기회 마련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며 예술적 수월성이 우수한 사업, 장애인 예술의 고유성, 독창성을 담아내거나 참신한 기획을 제시한 사업, 자생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갖춘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창작 활동에 그 목적의식이 없으며 개선의지가 없는 관행적인 사업, 이벤트성 사업, 구체성 및 전문성 제시가 부족하며 사업내용이 모호한 사업, 참여자나 예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드는 사업 등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장애인의 정체성, 고유성을 담아내는 작품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 예술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가 발굴되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예술가와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창작을 이어가서 머지않은 미래에 그 성과가 드러나기를 바란다.

[문학]

신청사업 작가 및 단체의 작품 창작 이력, 작품의 완성도,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문학 활동에 대한 열렬한 의지가 엿보이는 사업과 작품성이 우수한 사업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시각예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전국 단위로 진행한 공모로 창작 활성화 지원 유형은 장애 예술인들의 새로운 예술 창작과 발표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유형으로 장애인 예술가와 장애인 예술단체가 지원대상이었다. 이 중 시각예술 분야는 작년에 비해 신청 건수가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인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신청서들이 많아 사업을 선정함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대부분의 계획서에서 구체적이고 솔직한 제안과 함께 객관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작품을 설명해야 할 텐데 일방적인 개인의 주장이나 예술계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주관적인 언어로 포장되어있어 해석함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글들이 많아 아쉬웠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보편적인 가치 추구하고 장애인의 특수성 반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 때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벽을 넘을 수 있고 그러한 제안과 활동이 장애인 문화예술의 질적 성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음악, 전통예술]

음악, 전통예술 장르에서는 새로운 신작 재연 대비 기존의 작품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존 작품이라도 그것을 준비, 발표하는 과정에 새로운 사람, 협연자, 앙상블과 함께 한다면 이 또한 새로움을 위한 '창작'이라 할 수 있겠다. 기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이를 위해 새로운 협업을 모색, 시도한 단체에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 기존 작업에 장소만 바꾸거나 별다른 반성의 지점 없는 사업, 관행적 행사 형식의 사업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전년도 대비 음악 분야의 신청률이 강세였는데 사업내용의 질적인 성장이 미진한 점이 아쉬웠으나 음악 활동을 하는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양적인 성장이 장애인 예술계에 활력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

■ 문화예술 향수 지원

[다원예술, 무용, 연극, 예술일반]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사업수행역량, 장애인 참여 및 장애인 수혜자 개발 노력 등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검토하였다. 신청 사업을 대체적으로 4개 그룹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문공연예술단체의 신청사업의 경우, 참신하며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장애인 예술가의 역할이 중추적이고 장애인·비장애인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사업, 역량 개발에 대한 의지 여부, 진정성 등이 고려되었으며 소규모 예술단체의 경우 기획이 우수하고 장애인 감수성이 반영된 사업인가를 검토하였다. 관행적이거나 이벤트성 사업, 기존 사업의 동일한 버전, 수혜자나 관객에 대한 사전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수혜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 등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문학]

장애인의 문학 향유라는 목적성에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짜임새 있는 기획안, 장애인 문학 활동 역량강화 및 장애인 문학 향수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적인 문학행사 또는 발간, 일방적이고 진부한 방식으로 안일하게 수행되는 사업은 신중하게 재고하여 결정하였다. 당부할 점은 사업 참여자가 무엇보다도 사업수혜 대상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와 문학 활동 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으로 고심해서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시각예술]

시각 분야는 작년 보다 신청 건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수준도 나아진 것으로 보여졌다. 단 기존의 협·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시상식을 중심으로 협회인들만이 모여 하는 전시가 많았고, 특히 장애·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계획서가 드물어 아쉬웠다. 심사를 하며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프로그래밍의 추가와 장애인 배려 서비스(휠체어 동선, 점자, 큰 글자 등)들을 고민한 사업 신청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 함께 만들고 펼쳐가는 '동행'의 의미의 제안서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음악, 전통예술]

장애인,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한데 어우러져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 적합한 단체와 공연을 선정했다. 비장애인 중심의 단체가 지닌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을 선정하자는데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음악 분야에는 순수음악인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지원자들의 폭이 넓었으나 전통예술은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준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 동호회 활동 지원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이제 막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동호회 활동 지원을 심사하며 심사위원들은 사업이 참여자들의 자기역량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장애 당사자들의 활동의지와 자기표현이 잘 드러나는 사업들을 선정하려 노력했으며 단순 교육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에서 여전히 장애인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조건이 있다는 판단 하에 지역에 대한 안배를 반영했으며 야외활동이 쉽지 않다는 인식 아래 외부활동과 야외 직접체험의 요소가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올해 선정된 24건 사업을 계기로 향후 더 많은 활동과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계기들이 분출될 것을 기대한다.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개발 지원, 장애인 예술가 육성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총 102개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자택 서류심사와 선정 심의의 과정을 통해 27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심의기준으로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사업수행 역량 및 파급효과 등으로 제시된 심사기준 안에서 자격조건, 제출서류, 사업계획을 검토하였고 동점일 경우 장애인 단체와 지역 안배, 장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일부 단체의 경우 사업실적과 수행역량은 높았으나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해도와 실적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으며 반대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은 높았으나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역량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애인의 고유성 및 특성, 접근성이 반영된 사업, 사업의 연속성이 기대되는 사업, 참신한 기획력을 보여준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기획안,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기획안은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장애인 강사 채용, 장애인에 대한 시선과 대상화의 문제, 지역연계, 시설 연계가 우수한 사업도 고려대상이 되었다.

향후 참가 예술인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기획서 작성 이전에 전문가 컨설팅 기회 제공과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충실한 기획안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사업에 지원해주신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국제교류 활동 지원

2019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 유형의 심의대상은 시각예술과 음악 분야의 신청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무용, 다원예술, 예술일반, 전통예술 등을 포함해 총 50건이 지원하였다. 전년도 대비 지원사업의 내용이 다소 상향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이번 심의의 기준은 ‘국제교류’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술적 역량, 해외와의 상호작용의 밀도, 장애인 예술의 새로운 시도 및 독창성이 우선시 되었고, 국제교류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체 및 개인의 신뢰성, 진정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분야별 전문 역량과 장애인 예술가의 위상을 논의하면서 치열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의식을 심의위원 전원이 공유하였으며 지원신청서상의 예산 과목의 표준화와 사업의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수한 가치와 역량을 지닌 프로그램이 해외에 소개되어 유의미한 피드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국내 장애인예술의 위상이 올라가고 고양되기를 희망한다. 선정되신 예술가(단체)에 축하말씀을 드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선정되지 못하신 예술가(단체)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분발을 요청드린다.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